

# 축제로 망자의 영원한 삶 기원하는 전통 장례풍속

장례풍속으로 본 선조들의 죽음관

임재해 | 안동대 국학부 교수

빈 상여 놀이 또는 축제 형식의 장례행렬은 주검을 즐겁게 해 영혼을 달래는 진혼(鎭魂) 또는 오시(娛屍)의 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죽음은 이승의 종말이라는 점에서 비통한 일이지만, 저승에서 다시 나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점에서는 축복해야 할 일로 인식한다.



과거 우리 민족의 장례풍속은 노래와 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였다. 사진은 영화 <학생부군신위>의 한 장면.

사당이 소대변을 본다는 핑계로 장님 남편 몰래 중을 만나려고 들락날락거린다. 보다 못한 장님 남편이 아내에게 웬 소대변이 그리 잦은가 하고 나무라듯 따져 묻는다. 그러면 사당이, “오줌은 앞구멍으로 나오고 똥은 뒷구멍으로 나오는데 어찌할 것이요!” 하고 응수한다. 거사는 “참 그놈의 구멍 묘하게도 생겼네” 하고 못마땅해한다. 거사 남편을 억지로 집 바깥으로 내쫓은 사당이 중을 집안으로 불러들여 끼안고 법석을 떨면, 중은 사당의 배를 어루만지며 배속의 아이를 확인한다. 그러면 사당은 중을 끌어안고서 “낮에 보아도 내 이뻐 / 밤에 보아도 내 이뻐 이뻐 이뻐 / 내 이뻐 그것 아니라도 이쁜 것이 고깃 하나 달아갖고” 라며 중의 성기를 슬쩍 만진다.

**반의례적이고 패륜처럼 보이는 '다시래기' 풍속** 이게 무엇 하는 짓인가. 성인용 3류 비디오 이야기인가. 아니다. 상가에서 벌어지는 우리 장례풍속 가운데 하나인 진도 '다시래기'다. 상여 나가기 전날 진도에서는 씻김굿을 하고 마치 축제와 같은 놀이판을 질펀하게 벌인다. 다시래기의 둘째 거리인 '거사(居士) 사당 놀이'는 거사의 마누라인 사당을 둘러싸고 남편인 거사와 중이 함께 성관계를 맺는 데서 사건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그 형식과 내용이 파격적이다. 사당은 봉사 남편 몰래 중과 관계를 맺어서 아기까지 배게 되며, 사당이 아기를 낳으면 그런 내연의 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마침내 중과 거사는 아기를 두고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옥신각신 다툼을 벌인다.

사당: 애기 낳았다. 애기 낳았다!

중: 이것이 바로 내 새끼다.

거사: 여기 애기 도둑놈 있구나. 너는 누구냐. 내 새끼다 이놈아.

(거사와 중이 애기를 가지고 옥신각신한다.)

가상주: 사람 죽은 집에서 애기나 돌려 가지고 도망가자.

갑자기 가상주가 나타나서 아기를 빼앗아 가는 데서 다시래기는 끝이 난다. 도저히 상가의 풍속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의례적일 뿐 아니라 패륜처럼 보인다. 그래서 다시래기가 문화재로 주목받자 유림들이 들고일어나서 소송을 벌일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풍속은 진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출성전야에 상가에서 가상주 놀이 및 빈상여 놀이를 하는 것은 거의 전국적인 풍속이다.

상가에서 거짓 상주를 꾸며서 상주를 웃기는 풍속은 안동에서도 보인다. 가상주가 이웃에서 상복을 얻어 입고 상주 곁에 서서 뉘트리를 한다. “아이구 원통치, 시원치!” 하면서 엉뚱하게 곡을 하면, 상주가 지팡이로 때밀어낸다. 그러면 곧장 다가와서 “내가 상주할게” 하고 거짓 상주 노릇을 계속한다. 더 짓궂은 사람은 안상주처럼 삼베 치마를 차려 입고 뒤뚱뒤뚱 걸으며 곡을 하는 척하다가 큰 소리로 “아이고 아이고 / 그나 저나 잘 죽었다 / 잘 죽었다 /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만 / 사랑 차지 내 차지다” 하며 문상객은 물론 상주까지 기어코 웃긴다.

거의 전국적인 분포를 보이는 '빈 상여 놀이'도 주목할 만하다. 상두꾼들이 다음날 운상을 위해 발을 맞춰본다는 구실로 출성전야에 상가에 모여서 관을 신지 않은 빈 상여를 매고 놀이를 벌인다. 앞소리꾼이 상여 앞소리를 매기면서 상주나 사위를 차례로 불러들여 절을 시키는가 하면, 상여 위에 올라타게 하고는 마치 동채를 놀리듯 상여를 놀려서 낙마의 위험에 빠뜨리게 한다. 사위나 상주가 돈봉투를 내놓고 상가에서 술과 안주를 잘 차려내면 이를 먹고 다시 여흥놀이를 한다. 이 과정에서 죽음의 불안이나 슬픔은 말끔히

가시고 놀이로서 흥겨움과 신바람, 장난으로서 짓궂음과 웃음이 축제판을 이룬다.

**악가무가 함께 하는  
축제형식의 장례**

주검을 장지로 운구하는 과정에  
서도 축제적 요소는 이어진다.

진도의 운구행렬을 보면, 먼저  
풍물잡이가 풍물을 치며 앞장을 서고 춤꾼들이 풍물장단에 맞춰  
춤을 추며 뒤따르면, 주검을 운구하는 상여가 그 뒤를 이어서 간  
다. 이런 장례행렬의 전통은 “장례를 하면 곧 북을 치고 춤추며 노  
래 부르는 가운데 주검을 묘지로 운반했다”고 하는 《수서(隋書)》  
〈고구려조〉의 기록을 그대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  
우리 민족의 장례풍속은 악가무(樂歌舞)가 함께 하는 축제형식이  
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묘지를 쓰는 장지에서도 다양한 놀이가 벌어진다. 추자도의 ‘산  
다위’가 특히 걸작이다. 부인들로 이뤄진 상포계원들이 아침 일찍  
장지에 모여 산역을 하면서 노랫가락을 부르는데, 이것이 산다위의  
시작이다. 남자 상두꾼들이 운구를 해서 하관을 하고 봉분을 마무리  
할 무렵이면 산다위가 본격적으로 벌어진다. 사전에 지목해 둔  
남성에게 건강한 여성 넷이 일시에 달려들어 사지를 하나씩 낚아채  
면 나머지 여성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몸부림치는 남자의 몸을 여  
기저기 다투어 만진다. 남성의 성기를 먼저 만진 여성은 “이 물건은  
내꺼야!” 하고 소리친다. 남성은 살려달라고 애걸하지만, 상포계원  
들은 몸값으로 ‘보석금’을 두둑이 받아낸 뒤에 풀어준다.

무덤의 봉분을 다지면서 부르는 덜구소리의 내용도 다시래기의  
사당 거사 놀이와 같은 성희로 이뤄져 있다. 안동의 조차기씨가 덜  
구소리로 부르는 ‘훗사나 타령’이 좋은 보기다. 노래의 내용은 행  
실 나쁜 여자가 남편이 외방 장사 나간 사이에 간부(姦夫), 곧 훗사  
나를 불러들여 정사를 벌이는 것이다. 그러다가 아내의 바람끼를  
눈치챈 남편에게 들켜 용서를 받는 내용을 적나라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무자비개 도둑놓고 / 인조법단 전주세루 / 훌훌이 벗어놓고 /  
분통같은 짓을취고 / 전통같은 팔을비고 / 원앙금침 잣바게에 / 들  
이몸이 한몸되어 / 장포발에 금자라가놀듯이 / 아기자기자기자기  
도등실 잘도논데이”

‘위어~ 덜구여이!’ 하는 후렴구만 없다면 영락없는 사랑노래  
다. 죽음의 현장에서 성을 적나라하게 거론하는 양상은 양주별산  
대놀이의 신할애비 과장에서도 보인다. 신할애비와 아들 도끼는  
미알할미 주검을 앞에 두고 성에 관한 담론을 주고받는다. 도끼가  
“이왕에 나와 누님 맹길라구 아버지도 웅색 풀던 구녕은 시방 입때  
살았어” 하자, 신할애비는 “뉘 거기 살았어. 어디 만져보자 어디  
만져 봐.” 아내의 죽음 앞에서 나눈 부자간의 대화로 보기 어려운  
정도로 노골적이다.

도끼: 아버지~ 여기는 아즉까지 따듯하구려!

신할애비: 어데 보자.

도끼: 여기가 아버지 좋아하던 데구려!

신할애비: 암~ 너희들이 나온 데로구나.

아내와 어머니의 주검을 앞에 두고 부자는 오직 성기와 성행위  
에만 관심이 있다. 장례과정에서 왜 이런 성적인 관심과 놀이들이  
일관되게 나타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죽음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를 해명하는 것이다.

**죽음은 비통하지만  
축복해야 할 일**

빈 상여 놀이 또는 축제 형식의 장  
례행렬은 주검을 즐겁게 해 영혼을  
달래는 진혼(鎮魂) 또는 오시(娛  
屍)의 뜻이 담겨 있다.

망자의 저승길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것  
이 ‘마지막 효도’라고 여긴다. 그리고 죽음은 이승의 종말이라는  
점에서 비통한 일이지만, 저승에서 다시 나서 영원한 삶을 누리다  
는 점에서는 축복해야 할 일로 인식하는 것이다. 축제형식의 상여  
놀이를 통해서 상례 기간의 금기와 슬픔으로 억눌려 있는 기분을  
말끔히 해소하고 죽음을 삶의 국면으로 전환하는 구실을 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장례풍속은 죽은 자를 위해 전적으로 몰입될 수 없  
고 산 자를 위한 묘도 일정한 문화적 장치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의  
식하는 것이다.

노골적인 성 관련 놀이들이 다양한 풍속을 이루며 전승되는 것  
도 성행위는 죽음과 맞서는 생명의 상징이자 산 자의 것이기 때문  
이다. 성은 인간의 생명력을 가장 활성화시키는 행위이자 새 생명  
을 공급하는 생산적인 행위로 성이야말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삶의 양식이다. 질병과 죽음이 나약한 늙은이들의  
것이라면, 성행위와 아기의 출산은 생명력이 왕성한 젊은이들의  
몫이다. 성행위와 새 생명의 탄생은 낡은 세대의 죽음과 함께 새로  
운 세대의 출현을 뜻한다. 죽음의 현장에서 성을 말하고 성희를 즐  
기는 것은 죽음에 의한 인명의 손실과 상실의 절망을 출산에 의한  
인명의 충원과 성행위에 의한 산 자들의 생명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유교적 관념에 의해 우리 장례풍속을 엉뚱한 짓거리로  
하찮게 여겨서는 장례문화의 고유한 전통은 물론 죽음에 대한 민  
족적 인식을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 그러므로 중국 의례를 번안한  
고리타분한 예서(禮書)를 뒤적이는 일과,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례  
절차를 미풍양속으로 챙기는 일에서 벗어나, 자생적으로 형성된  
토착문화의 전통에 의해 주검을 운구하고 매장하는 장례 현장을  
주목해 보면, 조선조 이후에 들어온 중국의 유교식 상례와 다른 우  
리 민족 고유의 장례풍속을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죽  
음에 대한 민족적 세계관의 독자성도 선명하게 해명할 수 있다. ■

임재해 교수는 안동대 국학부 민속학 전공교수이자 실천민속학회장이다. 《한국민속학과 현실인식》  
《하회탈과 하회탈춤》《지역문화와 문화산업》 등의 저서와 《안동문화의 수수께끼》 등의 편저를 펴냈다.